전남매일

고품격 전기차로 즐기는 짜릿한 속도감

기아 'EV6' 시승기

미래지향·독창적 외관 눈길 차박족 겨냥 넒은 실내 장점 고속주행 선회·제동력 탁월

기아의 첫 전용 전기차 EV6는 하반기 자동차 업계 최고 기대작으로 같은 집안 의 현대차 아이오닉5와는 다른 현실적인 디자인과 더 진보된 성능을 자랑한다. 전 기차 특유의 정숙함은 물론 주행 모드별 확연히 다른 매력을 뽐낸다.

지난 14일 기아의 EV 시리즈의 첫 모 델 EV6를 시승했다. 시승차는 EV6의 주행 성능을 끌어올리고 외관 디자인을 가다듬은 롱레인지 GT-Line 2WD A/ T 기본형이다.

시승 구간은 광주 Autoland 광주공장 에서 담양 메타프로방스까지 왕복 50km 구간이었다. 고속 주행이 많았지만, 연비 는 5.4~5.7km/kWh로 공인 연비(4.6km /kWh)보다 조금 더 잘 나왔다.

EV6 외관은 기아의 의지를 담아 미래 지향적이면서도독창적인디자인을보였 다. 전기차의 선두주자인 테슬라와 견줘 도 뒤쳐지지 않고 더욱 세련된 인상을 줬 다.

기아는 EV6에 새로운 디자인 철학 '오퍼짓 유나이티드(상반된 개념의 창 의적 융합)'를 반영했다. 기존 기아의 '타이거 패밀리덱'을 전기차 이미지에 맞게 재해석한 '디지털 타이거 페이스' 를 적용해 매끄러운 외관을 완성했다.



지난 14일 기아의 EV 시리즈의 첫 모델 EV6를 시승했다. 시승 구간은 광주 Autoland 광주공장에서 담양 메타프로방스까지 왕복 50㎞ 구간이었다.

차박족을 겨냥한 EV6의 내부는 5인승 임에도 불구하고 꽤 넉넉한 실내를 자랑 한다. EV6는 롱레인지 기준 전장 4,695 mm, 전폭 1,890mm, 전고 1,550mm이 며 축간거리는 대형 SUV 팰리세이드와 같은 2,900mm이다.

2열 시트를 접으면 최대 1,300 *l* 까지 공간이 확보돼 차박이 가능하고 엔진이 빠진 전방 후드 안 20 *l* (2WD 모델의 경 우 52 l)의 '프렁크(프론트 트렁크)'

공간에 가벼운 짐을 추가로 실을 수 있

시동을 켠 순간 전기차 특유의 정숙함 을 자랑하며 계기판과 네비게이션 등을 표시하는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작동됐 다. 여기에 전면 창에 나타나는 증강현실 '헤드업 디스플레이'에는 현재 속도와 경로가 표시되며 보다 입체적인 주행을 안내한다.

첫 전기차 주행의 설레는 마음으로 가

속 페달을 조심스럽게 밟자 내연기관 못 지않은 반응으로 부드럽게 앞으로 나갔 다. 고속도로 진입 전 시내 주행에서 에 코 모드로 설정했다. 보통 부드러운 주행 이 아닌 마치 물 위쪽을 미끄러지듯 유려 한 주행 매력을 자랑했으며 잦은 브레이 크 작동에도 상당히 완벽한 속도 복원력 을 보여줬다.

고속도로에 진입하고 일반 모드로 변 경하자 즉각적인 엔진음 변화와 함께 주

행느낌이 몸으로 전달됐다. 부드러운 주 행은 유지하면서도 한층 더 강력해진 가 속성을 보여주며 마치 추진 엔진을 하나 더 추가한 느낌이 들었다.

/기아 제공

빠른 속도에서도 선회 능력과 급차선 변경 시 안정감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 다. EV6 차량 하부에 배터리팩이 배치된 'E-GMP' 플랫폼의 특성상 무게 중심 이 낮아 안정감이 상당히 올라갔다. 산악 국도에서도 깔끔한 코너링은 물론 차량





기아 EV6 내부이미지.

/기아제공

쏠림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안정감이 일 품이다.

경유지를 돌아 복귀하는 중에는 스포 츠 모드로 주행했다. 일반 모드에서도 에 코 모드와 확연히 다른 매력을 느꼈기에 스포츠 모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. EV6는 이 기대감을 완벽히 충족시켰다. 기속 페달을 밟자 몸이 뒤로 밀릴 정도의 순간 가속을 냈다.

최고출력 325마력의 힘이 느껴지는 것 은 물론 속도가 끊임없이 올라감에도 안 정감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. 특히 고속 주행 중에도 차선변경과 선회에는 물론 요철을 지나갈 때 충격 흡수와 제동력도 완벽한 수준이었다.

스포츠 주행의 성능을 몸소 느껴보니 하반기 출시 예정인 고성능 모델 'EV6 GT'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. EV6 GT 는 제로백(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㎞가 속까지 걸리는 시간)이 단 3.5초에 불과 하며 이는 현대차의 고성능 모델 아반떼 N과 같은 수준이다. /서미애 기자

M 전남매일 임산부의 날 캠페인

10월 10일은 "임산부의 날"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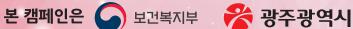
임산부는 임신기간 호르몬의 변화로 입덧과 구토, 과다한 피로감, 우울감 등 몸과 마음이 힘들 수 있으며, 특히 겉으로 구분이 잘 안 되는 임신 초기에는 무리한 활동이나 스트레스가 유산의 유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.

임산부 배려, 우리 모두 함께해요

- 임산부 배려석은 비워두거나 양보하기!
- 줄서기를 하고 있다면 임산부에게 순서를 양보해요!
- 모두에게 해로운 담배, 임산부에게는 특히 더 조심해요!
- 직장에서 임산부에게 무리한 근무와 스트레스는 금물!
- 출산 전·후 휴가와 단축근무 신청은 당연한 권리!







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

인구보건복지협회광주전남지회가 함께합니다

달리면서 기부하는 '롱기스트 런'

현대차, 내달 2~3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서 진행

현대자동차는 달리기를 통해 환경에 기 부하는 사회공헌 캠페인인 '2021 롱기스 트 런'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광 주에서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.

작해 올해로 6회째를 맞는 고객 참여형 사 회공헌 캠페인으로, 참가자가 전용 앱을

참여하는 방식이다.

'2021 롱기스트 런 in 광주'는 광주 동 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다음달 2~3 일 이틀간 열리며 A코스(광주천 수변 코 롱기스트 런은 현대차가 2016년부터 시 스)와 B코스(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미 션 레이스)로 구성된다.

다운로드한 후 달리기와 친환경 미션 등에 기스트 런 전용 애플리케이션의 GPS 기 키지'가 제공된다.

능과 블루투스 비콘(근거리 스마트 기기 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무선 통신 장치)을 활용해 자동으로 완주가 인증된다.

참가 희망자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전용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. 참가비는 1만5 천원이다.

참가비 전액은 무등산 국립공원 환경보 호 사업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의 공동 기부금으로 전달돼 식재 사업에 사용될 예

행사 참가자에게는 기념 티셔츠, 비누 레이스는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롱 메달, 유리 빨대 등으로 구성된 '러닝 패 /서미애 기자

기아 새 엠블럼 적용 'The 2022 스팅어' 출시

연식변경 · '애스코트 그린' 추가

기아는 'The 2022 스팅어' 를출시하고 판매에 돌입했다고 16일 밝혔다.

신형 스팅어는 지난해 8월 출시된 스팅 어 마이스터의 연식변경 모델이다. 2022 년형 스팅어엔 기아의 신규 엠블럼을 적 용, 영국의 애스코트(Ascot) 경마장에서 착안한 신규 외장색 '애스코트 그린'을 추가했다.

기아는 엔트리 트림 '플래티넘'에 고객 선호도가 높은 레인센서와 후드 가니시를 기본 적용했으며 상위 트림 '마스터즈'에 는 7인치 클러스터 · 프로젝션 LED 헤드 램프 · 다이나믹 밴딩 라이트를 기본화했

기아는 아울러 스팅어의 역동성과 고급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디자인 특화 트림



기아 'The 2022 스팅어'.

신규 운영한다. 최고·정점(Acro), 무채 로 에디션은 19형 디자인 휠과 블랙 스웨

인 '아크로 에디션' 과 리어 스포일러를 이드 헤드라이닝, 크래시패드 및 도어 센 터트림 스웨이드 감싸기, 체인 볼륨 패턴 색(Achromatic)이란 의미를 담은 아크 스웨이드 시트 등을 적용해 실내외 고급감 을 한층 높였다. /서미애 기자

/기아 제공

'현대차 아이오닉 5' 최고 전기차

독일 자동차 전문지 평가서 BMW·아우디 제치고 1위

글로벌 시장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의 위 상이 달라졌다. 예전에는 가성비(가격 대 비 성능)로 인정받았지만, 이제는 브랜드 가치와 성능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 가받고 있다.

16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가 독일 자동차 전문지 '아우 토자이퉁'의 전기차 비교 평가에서 BMW와 아우디의 전기차를 제치고 1위 에 올랐다.

아이오닉5는 파워트레인, 주행성능, 환 경/비용 등 3가지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 다. 바디 및 주행 컴포트에서는 2위를 기 록했다. 종합 결과에서 총점 3,267점을 기 록하며, 3,100점대에 머문 BMW iX3 (3,187점), 아우디 Q4 e-트론(3,149점) 을 제쳤다.

아이오닉5는 발진 가속, 최고속도, 동 력전달 과정, 충전 등에서 경쟁 모델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. /서미애 기자